[최상위 국어 솔루션! 김대기 4% 국어]

음운론

모의고사 문제모음

Ⅰ. 음운의 교체

[06년 4월 고3 13번] <보기>의 음운 현상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 [1)]

<보 기>

자음 동화란 자음과 자음이 만날 때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을 닮아서 그와 같은 소리나 비슷한 소리로 바뀌는 현상, 또는 서로 동화되어 두 소리가 같거나 비슷한 소리로 바뀌는 현상을 말한다.

(가) 받침 'ㄱ, ㄷ, ㅂ'은 'ㄴ, ㅁ' 앞에서 [ㅇ, ㄴ, ㅁ]으로 발음한다.

(나) 'ㄴ'은 'ㄹ'의 앞이나 뒤에서 [ㄹ]로 발음한다.

[붙임] 첫소리 'ㄴ'이 'ㄶ', 'ㄾ' 뒤에 연결되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.

① (가)로 보아, '국민'이라는 단어는 [궁민]으로 발음해야 한다.
② (가)를 바탕으로 하면, '손을 잡는 엄마'에서 '잡는'은 [잠는]으로 읽어야 한다.
③ '난로'를 [날로]로 발음하는 것은 (나)의 적용을 받은 결과이다.
④ (나)의 [붙임]을 고려하여, '감기를 앓는 동생'에서 '앓는'은 [알는]으로 발음해야 한다.
⑤ '물난리'가 [물랄리]로 발음되는 것은 (나)의 경우가 두 번 적용되었기 때문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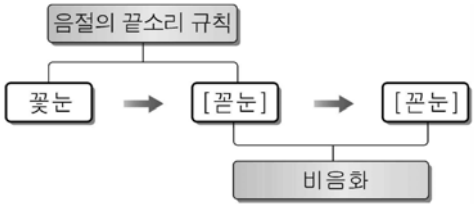
[13년 3월 학평 A형 11번] <보기>의 ⓐ와 동일한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는 단어는 ? [2)]

<보 기>

오늘 국어 시간에 두 가지 음운 규칙을 배웠다.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'잎'이 [입]으로 소리 나는 것처럼 우리말 받침으로 소리 나는 자음은 'ㄱ, ㄴ, ㄷ, ㄹ, ㅁ, ㅂ, ㅇ'의 일곱 개라는 것이다.

또 하나의 규칙은 비음화인데 '밥만'이 [밤만]이 되는 것처럼 'ㄱ, ㄷ, ㅂ'이 'ㄴ, ㅁ' 앞에서 비음으로 소리 나는 것이다.

이제 ⓐ **'꽃눈'이 [꼰눈]으로 소리 나는 현상**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.



① 끝까지 [끋까지]　② 부엌도 [부억또]　③ 눈약 [눈냑]
④ 놓는 [논는]　⑤ 덮밥 [덥빱]

[13년 4월 학평 B형 12번] 다음은 문법 수업의 일부이다. 이를 바탕으로 <보기>의 밑줄 친 부분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 3)

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

* 자음 동화

자음 동화에는, 자음 'ㄱ, ㄷ, ㅂ'이 비음 'ㄴ, ㅁ' 앞에서 비음의 영향을 받아 각각 'ㅇ, ㄴ, ㅁ'으로 발음되는 '비음화'와 자음 'ㄴ'이 유음 'ㄹ'의 앞이나 뒤에서 유음의 영향을 받아 'ㄹ'로 발음되는 '유음화'가 있다. '국물[궁물]'은 'ㄱ'이 'ㅁ' 앞에서 'ㅇ'으로 발음되는 비음화의 사례이며, '난리[날리]'는 'ㄴ'이 'ㄹ' 앞에서 'ㄹ'로 발음되는 유음화의 사례이다.

선생님의 설명

'음운의 첨가'란 원래는 없던 소리가 첨가되어 발음되는 것을 말합니다. 예를 들어 '맨입으로는 알려 줄 수 없다.'에서 '맨입'은 '[맨닙]'으로 발음됩니다.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앞말의 끝이 자음이고 뒷말이 '이, 야, 여, 요, 유'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뒷말의 첫 소리에 'ㄴ' 소리가 첨가되기 때문이지요. 또 합성어에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'ㄴ, ㅁ'으로 시작되는 경우에도 앞말의 끝소리에 'ㄴ' 소리가 첨가됩니다. 이때에는 '뒷문[뒨문]'의 경우처럼 앞말에 사이시옷('ㅅ')을 넣어서 이를 표시해 준답니다.

<보 기>

ㄱ. 그는 날렵한 ⓐ **콧날[콘날]**이 매우 인상적이다.
ㄴ. 나는 아끼던 ⓑ **색연필[생년필]**을 잃어버려 속이 상했다.
ㄷ. 그 사람은 회사의 ⓒ **막일[망닐]**을 도맡아 하고 있었다.
ㄹ. 아이가 아직 알약을 먹지 못해서 ⓓ **물약[물략]**을 지어갔다.
ㅁ. 그녀는 ⓔ **잇몸[인몸]**이 약해져서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았다.

① ⓐ는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'ㄴ'으로 시작되는 합성어이므로 앞말의 끝소리에 'ㄴ' 소리가 첨가된 경우라고 할 수 있군.
② ⓑ에서 'ㄴ' 소리가 첨가된 이유는 앞말의 끝이 자음이고 뒷말이 '여'로 시작하는 합성어이기 때문이군.
③ ⓒ는 'ㄴ' 소리가 첨가된 후, 'ㅁ'의 영향으로 'ㄱ'이 비음화 된 경우라고 할 수 있군.
④ ⓓ는 'ㄴ' 소리가 첨가되어 '[물냑]'으로 바뀐 후, 'ㄹ'의 영향으로 유음화가 일어난 경우라고 할 수 있군.
⑤ ⓔ는 사이시옷을 넣어서 'ㄴ' 소리가 첨가됨을 표시한 경우라고 할 수 있군.

[13년 6월 모평 A형 11번] 다음의 ㉠ ~ ㉤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? 4)

* 다음 단어들을 발음해 보고 단계별 활동을 수행해 보자.

부엌, 간, 옷, 빛, 달, 앞, 창

(1) 음절 끝의 자음이 바뀌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해 보자.
(㉠)

(2) 음절 끝의 자음이 안 바뀌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알아보자.
(㉡)

(3) 음절 끝의 자음이 바뀌는 경우에는 어떤 자음으로 변하는지 정리해 보자.
(㉢)

(4) (3)과 동일한 음운 변동이 일어난 예들을 더 찾아보자.
(㉣)

(5) 이상의 활동을 바탕으로 음절 끝에서 발음되는 자음의 목록을 정리해 보자.
(㉤)

① ㉠ : 음절 끝의 자음이 바뀌지 않는 경우는 '부엌, 간, 달, 섬, 창'이다.
② ㉡ : 음절 끝의 자음이 예사소리일 때에는 바뀌지 않는다.
③ ㉢ : 음운 변동이 일어나면 'ㄱ, ㄹ, ㅂ' 중 하나로 바뀐다.
④ ㉣ : '밖'과 '밑'을 음운 변동의 예로 추가할 수 있다.
⑤ ㉤ : 음절 끝에서는 'ㄱ, ㄴ, ㄹ, ㅁ, ㅂ, ㅅ, ㅇ'만 발음된다.

[13년 7월 학평 B형 12번] <보기>의 ㉠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? 5)

<보 기>

'막일'은 [망닐]로 발음된다. 이는 표준 발음법 제18항과 제29항에 적용된 것이다.

제18항
받침 'ㄱ(ㄲ, ㅋ, ㄳ, ㄺ), ㄷ(ㅅ, ㅆ, ㅈ, ㅊ, ㅌ, ㅎ), ㅂ(ㅍ, ㄼ, ㄾ, ㅄ)'은 'ㄴ, ㅁ' 앞에서 [ㅇ, ㄴ, ㅁ]으로 발음한다.

제29항
합성어 및 파생어에서,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음절이 '이, 야, 여, 요, 유'인 경우에는, 'ㄴ' 음을 첨가하여 [니, 냐, 녀, 뇨, 뉴]로 발음한다.

이 과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으며, 이와 같은 예로는 ㉠ 을/를 들 수 있다.

막일 → [막닐] → [망닐]
제29항 제18항

① 식용유 ② 색연필 ③ 솜이불
④ 맨입 ⑤ 국물

[13년 10월 학평 B형 11번] <보기>를 고려하여 '동화'와 관련된 표준 발음을 이해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? [6]

<보 기>

[표준 발음법 - 음의 동화]

- 받침 'ㄷ, ㅌ(ㄾ)'이 조사나 접미사의 모음 'ㅣ'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[ㅈ, ㅊ]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.
- 받침 'ㄱ(ㄲ, ㅋ, ㄳ, ㄺ), ㄷ(ㅅ, ㅆ, ㅈ, ㅊ, ㅌ, ㅎ), ㅂ(ㅍ, ㄿ, ㅀ, ㅄ)'은 'ㄴ, ㅁ' 앞에서 [ㅇ, ㄴ, ㅁ]으로 발음한다.
- 받침 'ㅁ, ㅇ' 뒤에 연결되는 'ㄹ'은 [ㄴ]으로 발음한다.
- 'ㄴ'은 'ㄹ'의 앞이나 뒤에서 [ㄹ]로 발음한다. 단, 일부 한자어의 경우 예외가 있다.
- 위에서 지적한 이외의 자음 동화는 인정하지 않는다.

① '미닫이'는 'ㄷ'이 모음 'ㅣ'에 동화되므로 [미다지]가 표준 발음이다.
② '닫는'은 'ㄷ'이 'ㄴ'에 동화되므로 [단는]이 표준 발음이다.
③ '침략'은 'ㄹ'이 'ㅁ'에 동화되므로 [침냑]이 표준 발음이다.
④ '칼날'은 'ㄴ'이 'ㅁ'에 동화되므로 [칼랄]이 표준 발음이다.
⑤ '신문'은 'ㄴ'이 'ㅁ'에 동화되므로 [심문]이 표준 발음이다.

[14년 9월 모평 A형 11번] <보기>의 ㉠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? [7]

<보 기>

학 생 : '식물'이 [싱물]로 발음되는데, 두 자음이 만나서 발음될 때 조음 위치나 방식 중 무엇이 바뀐 것인가요?

선생님 : 아래의 자음 분류표를 보면서 그 답을 찾아봅시다.

조음 위치 / 조음 방식	양순음	치조음	연구개음
파열음	ㅂ	ㄷ	ㄱ
비 음	ㅁ	ㄴ	ㅇ

이 표는 국어 자음을 조음 위치와 조음 방식에 따라 분류한 자음 체계의 일부입니다. '식'의 'ㄱ'이 '물'의 'ㅁ' 앞에서 [ㅇ]으로 발음되었지요. 이와 비슷한 예들로는 '입는[임는]', '뜯는[뜬는]'이 있는데, 이 과정에서 무엇이 달라졌나요?

학 생 : 세 경우 모두 두 자음이 만나서 발음될 때, ㉠이/가 변했네요.

① 앞 자음의 조음 방식
② 뒤 자음의 조음 방식
③ 두 자음의 조음 방식
④ 앞 자음의 조음 위치
⑤ 뒤 자음의 조음 위치

[13년 9월 모평 A형 11번] <보기>를 바탕으로 음운 변동을 바르게 이해한 것은 ? 8)

<보 기>

음운의 변동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. 어떤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㉠**교체**, 어떤 음운이 없어지는 ㉡**탈락**, 새로운 음운이 생기는 ㉢**첨가**, 두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합쳐지는 ㉣**축약**이 그것이다.

① '가랑잎 [가랑닙]'에서는 ㉢과 ㉡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.
② '값지다 [갑찌다]'에서는 ㉠과 ㉢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.
③ '숱하다 [수타다]'에서는 ㉣과 ㉡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.
④ '급행열차 [그팽녈차]'에서는 ㉣과 ㉢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.
⑤ '서른여덟 [서른녀덜]'에서는 ㉠과 ㉣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.

[13년 수능 A형 11번] 다음 ㉠~㉢의 음운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? 9)

<보 기>

㉠ 빗 → [빋], 앞→[압], 안팎→ [안팍]
㉡ 약밥 → [약빱], 잡다 → [잡따]
㉢ 놓지 → [노치], 맏형 → [마텽]

① ㉠과 ㉡은 음절 종성에 놓인 자음이 바뀌는 변동이다.
② ㉠은 거센소리를 예사소리로, ㉢은 거센소리를 된소리로 바꾸는 변동이다.
③ ㉠과 ㉢의 변동이 모두 일어난 예로 '따뜻하다 → [따뜨타다]'를 들 수 있다.
④ ㉡과 ㉢의 변동은 뒤의 자음이 앞의 자음에 동화된 것이다.
⑤ ㉡은 음운의 첨가에, ㉢은 음운의 축약에 속한다.

Ⅱ. 축약과 탈락

[13년 7월 학평 A형 11번] <보기 1>의 ⓐ, ⓑ의 밑줄 친 부분에 나타나는 음운 현상에 대한 설명을 <보기 2>에서 찾아 바르게 짝지은 것은 ? [10]

<보 기 1>

ⓐ 나는 **<u>듬직한</u>** **<u>말형</u>**이 **<u>좋다</u>**.
[나는 듬지칸 마텽이 조타]

ⓑ **<u>작문</u>** 시간에 **<u>해돋이</u>**를 주제로 글을 쓴다.
[장문 시가네 해도지를 주제로 그를 쓴다]

<보 기 2>

ㄱ. 두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줄어든다.
ㄴ. 두 음운이 만나 그 중 하나가 탈락한다.
ㄷ. 두 음운이 만나 그 중의 하나가 다른 음운으로 바뀐다.
ㄹ. 두 음운이 합쳐질 때 그 사이에 새로운 음운이 덧붙는다.

	ⓐ	ⓑ
①	ㄱ	ㄷ
②	ㄱ	ㄹ
③	ㄴ	ㄷ
④	ㄴ	ㄹ
⑤	ㄷ	ㄹ

[14년 4월 학평 A형 11번] 다음은 '축약'에 대한 문법 수업의 일부이다. (가)~(다)의 사례를 <보기>에서 골라 바르게 짝지은 것은 ? [11]

[선생님의 설명]

음운의 변동 중 '축약'은 자음 간의 축약과 모음 간의 축약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. '놓고'가 [노코]로 발음되는 (가)거센소리 되기는 자음이 축약된 사례이고, '보아'가 '봐'로 음절이 줄어드는 경우는 모음이 축약된 사례라고 할 수 있지요. 그런데 모음의 축약을 용언으로 한정할 경우, (나)어간에서만의 축약, 어미에서만의 축약, (다)어간과 어미의 축약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답니다. 예를 들어 '입으셨다'는 선어말 어미인 '-시-'와 '-었-'이 '-셨-'으로 축약되었으므로 어미에서만의 축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.

<보 기>

고등학교 ⓐ**입학** 후 중학교 친구들을 만났다. 우리들은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니 정말 ⓑ**좋다며** 반갑게 인사를 ⓒ**나눴다**. 눈에 ⓓ**띄게** 모습이 변한 친구들도 있었지만, 다들 마음만은 여전해 ⓔ**보였다**. 우리들은 많은 이야기를 나눈 뒤, 다음을 기약하며 헤어졌다.

	(가)	(나)	(다)
①	ⓑ	ⓐ , ⓓ	ⓒ , ⓔ
②	ⓒ	ⓐ , ⓑ	ⓓ , ⓔ
③	ⓐ , ⓑ	ⓓ	ⓒ , ⓔ
④	ⓐ , ⓑ	ⓒ , ⓔ	ⓓ
⑤	ⓐ , ⓔ	ⓑ , ⓓ	ⓒ

[14년 7월 학평 A형 12번] 다음 ㄱ ~ ㄹ의 음운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? [12]

ㄱ. 꽃 [꼳], 앞 [압]
ㄴ. 맨입 [맨닙], 담요 [담:뇨]
ㄷ. 안다 [안:따], 탁구 [탁꾸]
ㄹ. 낳다 [나:타], 오+와서 → 와서 [와서]

① ㄱ과 ㄴ의 변동이 모두 일어난 예로 '홑이불 → [혼니불]'을 들 수 있다.
② ㄱ과 ㄷ은 모두 교체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 현상이다.
③ ㄱ과 ㄷ의 변동이 모두 일어난 예로 '엎다 → [업따]'를 들 수 있다.
④ ㄹ의 [나:타]는 자음 축약에, [와서]는 모음 축약에 해당한다.
⑤ ㄹ의 [와서]와 같은 예로, '집에 가아 → 집에 가[가]'를 들 수 있다.

[13년 7월 학평 B형 11번] <보기 1>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예를 <보기 2>에서 모두 고른 것은 ? [13]

> <보 기 1>
>
> 두 음운이 결합할 때 어느 한 음운이 없어지는 현상을 음운의 탈락이라고 한다. 끝소리 'ㅎ'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접미사와 결합하여 탈락하는 경우나 음절의 끝에 두 개의 자음이 올 때 이 중에서 한 자음이 탈락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.

> <보 기 2>
>
> 내일은 소풍 가는 날, 비 오지 ㉠**<u>않기</u>**를 바라며 잠자리에 들었다. 잔디밭을 ㉡**<u>밟고</u>** 친구들과 ㉢**<u>같이</u>** 즐겁게 놀며 ㉣**<u>멋진</u>** 경치를 볼 생각에 기분이 ㉤**<u>좋아서</u>** 잠도 오지 않았다.

① ㉠, ㉡ ② ㉠, ㉢ ③ ㉡, ㉤
④ ㉢, ㉣ ⑤ ㉣, ㉤

[14년 3월 학평 A형 11번] <보기>의 음운 현상과 가장 관계 깊은 것은 ? [14]

> <보 기>
>
> 'ㅎ'이 끝소리인 어간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접미사와 결합하면 'ㅎ'이 탈락한다. '낳으세요'를 [나으세요]로 발음하거나 '쌓이다'를 [싸이다]로 발음하는 것도 이와 관련된다.

① '하얗다'를 [하야타]라고 발음한다.
② '좁히다'를 [조피다]라고 발음한다.
③ '놓는다'를 [논는다]라고 발음한다.
④ '그렇죠'를 [그러쵸]라고 발음한다.
⑤ '좋아요'를 [조아요]라고 발음한다.

[13년 9월 모평 A형 11번] <보기>를 바탕으로 음운 변동을 바르게 이해한 것은 ? [15]

> <보 기>
>
> 음운의 변동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. 어떤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㉠**교체**, 어떤 음운이 없어지는 ㉡**탈락**, 새로운 음운이 생기는 ㉢**첨가**, 두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합쳐지는 ㉣**축약**이 그것이다.

① '가랑잎 [가랑닙]'에서는 ㉢과 ㉡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.
② '값지다 [갑찌다]'에서는 ㉠과 ㉢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.
③ '숱하다 [수타다]'에서는 ㉣과 ㉡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.
④ '급행열차 [그팽녈차]'에서는 ㉣과 ㉢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.
⑤ '서른여덟 [서른녀덜]'에서는 ㉠과 ㉣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.

[13년 수능 A형 11번] 다음 ㉠~㉢의 음운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? [16]

> <보 기>
>
> ㉠ 빗 → [빋], 앞→[압], 안팎→ [안팍]
> ㉡ 약밥 → [약빱], 잡다 → [잡따]
> ㉢ 놓지 → [노치], 맏형 → [마텽]

① ㉠과 ㉡은 음절 종성에 놓인 자음이 바뀌는 변동이다.
② ㉠은 거센소리를 예사소리로, ㉢은 거센소리를 된소리로 바꾸는 변동이다.
③ ㉠과 ㉢의 변동이 모두 일어난 예로 '따뜻하다 → [따뜨타다]'를 들 수 있다.
④ ㉡과 ㉢의 변동은 뒤의 자음이 앞의 자음에 동화된 것이다.
⑤ ㉡은 음운의 첨가에, ㉢은 음운의 축약에 속한다.

정 답 표

* 각 문제의 마지막에 작은 숫자로 표시된 것이 문항 번호입니다.

---

1) ④
2) ④
3) ③
4) ④
5) ②
6) ⑤
7) ①
8) ④
9) ③
10) ①
11) ③
12) ⑤
13) ③
14) ⑤
15) ④
16) ③